

매카시적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KBS, MBC, SBS 3개 공중파 방송은
대선에서의 매카시적 여론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우리 국민은 하루 종일 KBS, MBC, SBS 3개 공중파 방송이 생방송으로 틀어내는 한국논단의 이른바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지켜보아야 했다.

우리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오늘 하루종일 진행된 생방송을 지켜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권력 제 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이것도 가장 막강한 국민적 위력을 발휘하는 텔레비전 방송이 일개 월간잡지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생중제한 것은 이번 대선을 극우적 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논단」은 그동안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와, 시민, 종교단체들을 좌익으로, 김일성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모략까지도 일삼았던 대표적인 극우언론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의 단체들이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대선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할 3개 공중파 방송이 이러한 한국논단 주최의 토론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 생중제한 것은 각 방송국들이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번 대선을 매카시즘적 분위기로 불고하려는 의도에 편승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만약 한국논단처럼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우리가 시뮬하는 언론사가 토론회를 주최해도 3개 방송국이 생중제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3개 방송사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용서를 청하고, 균형 잡힌 대선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지 않는다면 시청료 거부 운동과 방송사 항의방문 등의 다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또한 한국논단의 발행인인 이도형씨는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의 토론에서 경제정의추진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을 적시하면서 이들 단체들이 단체의 운영비를 기업의 약점을 잡아 받은 검은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국민이 알다시피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사회의 양심과 도덕성의 잣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역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헌신했던 단체들로서 한국천주교교회에서 운영하는 능적인 단체이다. 이들에 대해 검은 돈 유희하는 것은 양식의 문제를 넘어 정신분열의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회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어전 속에서 회원들과 일부 후원회원의 도움으로 재정을 꾸려 가고 있다. 이들도 역시 10년 남짓한 역사 동안 정권의 독수를 견제하고 시민의 편에서 일했던 순수한 민간단체들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망발은 이들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냈던 국민들에 대한 보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도형씨에 대해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극우적 매카시스트 이도형씨의 발언 그 자체보다는 그의 발언을 여과없이 생중계한 방송사의 의도에 대해 더 큰 질책을 보내고자 한다. 방송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때에만, 국민에게 받고 있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0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 柳鉉錫)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 朴승원, 文奎鉉, 張容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 崔永道)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대표 : 金昌國)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 金亨泰)